



프로야구 정규시즌 우승 안갯속

kt, 우승 확정 매직넘버 '7'... 삼성과 2연전 분수령 LG 남은 경기 결과 따라 2위 확보 또는 우승도 가능

2021년 한국프로야구 KBO리그는 '3강 체제'다. kt wiz와 삼성 라이온즈, LG 트윈스가 정규시즌 우승의 꿈을 품고 결승선을 향해 달린다.

하지만, 10월 들어 3강 모두 주춤하고 있다. kt는 1위를 굳힐 기회를, 삼성과 LG는 전세를 뒤집을 찬스를 각각 놓쳤다.

kt는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17경기를 치러 단 5승(3무 9패)에 그쳤다. 승률 0.357로 10월 승률 최하위(10위)다.

이 기간 팀 평균자책점은 2.96으로 1위를 달렸지만, 팀 타선이 침묵했다. 10월 팀 타율은 0.250으로 4위에 오르긴 했으나, 득점권 타율이 0.199로 9위였다.

특점 기회에서 싸늘하게 식은 타선 탓에 kt는 일찌감치 1위를 확정할 기회를 잃었다.

2위 삼성과 3위 LG도 아쉽게 놓친 경기가 많다.

삼성은 10월 8승 7패(승률 0.533), LG는 7승 4무 8패(승률 0.467)로 월간 승률 6위와 7위에 머물렀다.

kt의 1위 확정을 위한 매직넘버는 7이다. kt는 남은 경기 중 7승을 거두면 삼성, LG의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1위를 확정한다.

27~28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리는 NC 다이노스와의 홈 3연전(28일은 더블헤더) 중에 1위를 확정하는 게 kt의 최상의 시나리오다.

2위 확보 매직넘버는 3위 LG가 쥐고 있다. LG는 '3강' 중 가장 많은 10경기를 남겨뒀다.

10경기에서 모두 승리(승률 0.585)하거나, 9승 1무(승률 0.582)를 거두면 LG는 최소 2위를 확보한다.

6경기가 남은 삼성이 거둘 수 있

는 최고 승률은 0.581이다.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삼성이 kt와의 2연전을 모두 잡고 LG가 10승 혹은 9승 1무로 선전하면 LG가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다.

지난 17일에 포스트시즌(PS) 진출을 확정된 kt, 삼성과 달리 LG는 PS 진출을 위한 매직넘버 3을 남겼다. 그러나 남은 경기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도약 가능성도 LG에 크게 열려 있다.

삼성은 1, 2위 매직넘버를 쥐고 있지는 않지만, 전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일정표를 받았다.

22~24일, kt·SSG 랜더스와의 대구 홈 3연전을 치르면 이틀을 쉬고 27일 키움 히어로즈와 맞붙는다. 이후 또 하루를 쉬고 NC와 29~30일 정규시즌 마지막 2연전을 벌인다.

2위 삼성과 1위 kt의 격차는 1게임이다. 22일과 23일 대구에서 펼쳐지는 kt와 삼성의 2연전은 2021시즌 정규시즌 선두 싸움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수영 고준혁(왼쪽)과 송경조, 맨스포르츠 강민혜(왼쪽)와 강성범, 배드민턴 양치봉(왼쪽)과 강경수.

장애인체전 이틀째, 제주 무더기 메달 수확

21일 금 3·은 3·동 5개 등 11개 추가 획득... 누적 14개 맨스포르츠 강성범·강민혜 제주선수단 첫 2관왕 등극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이틀째인 21일 제주도선수단이 무더기 메달을 수확하며 선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 등 총 11개의 메달을 추가 획득했다고 밝혔다. 누적 메달 수는 14개(금 3, 은 4, 동 7)다.

제주선수단 첫 금메달은 이날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수영경기 남자 평영 50m SB8 송경조가 안겼다. 남자 배영 100m S7 고준혁은 은메달을 획득했다.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맨스포르츠 경기에서는 혼성 라틴 자이브 class2와 혼성 라틴 파소도블레

class2에 출전한 강성범·강민혜가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제주선수단 첫 2관왕에 올랐다.

배드민턴 경기에서도 메달이 쏟아졌다.

이날 포스코한마당체육관에서 열린 배드민턴 경기 남자복식 휠체어 통합 강경수·양치봉이 은메달을, 남자단식 WH2 김성훈과 WH1 이동섭, 여자 단식 WH2 김연심과 DB 김자영이 각각 동메달을 추가했다.

또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육상경기에서는 이동규가 남자 400m T37 경기에서 은메달을, 안동제활원론볼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혼성 단식 B4에 출전한 황득용이 3·4위전

에서 승리하며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와함께 이날 금오테니스장에서 열린 혼성복식 Quad 강동원·이충호는 4강에 진출해 동메달을 확보했으며, 경주축구공원에서 진행된 남자 지적구공원에서 제주는 부산을 맞아 2대 0으로 제압하며 8강에 진출했다.

한편 제주선수단은 대회 3일째인 22일 배드민턴, 휠체어농구, 역도, 육상, 사이클, 수영 등 17개 종목에 출전해 메달 사냥을 이어간다.

특히 배드민턴이 '금빛 스매싱'을 준비한다. 남자단식 SL3 오기주와 SL4 신경환, 남자복식 SU5 박성환·신경환, 남자복식 WH1-2 김성훈·이동섭, 여자복식 WH1-2 강정금·김연심, 혼합복식 WH1-2 강정금·김성훈, 김연심·이동섭 등 8개 세부종목에서 결승전이 치러진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맨유 구한 호날두 20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F조 3차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잉글랜드) 대 아탈란타(이탈리아)의 경기에서 맨유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팀의 세 번째 골을 넣고 있다. 이날 맨유는 전반 두 골을 내준 뒤 후반에 세 골을 넣어 3-2 역전승을 거뒀다. UCL 역대 득점 1위인 호날두는 자신의 기록을 137골로 늘렸다. 연합뉴스

손흥민·케인 최다 합작골 도전

손흥민(29·토트넘)이 이번 주말 '단짜' 해리 케인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역대 최다 골 합작 타이 기록에 도전한다.

토트넘은 24일 오후 10시(한국시

간)부터 영국 런던 스타디움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2021-2022 EPL 9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8라운드까지 승점 15으로 5위에 이름을 올린 토트넘으로선 상위권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경기다.

특히 손흥민과 케인은 EPL 역대

최다 골 합작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이 경기에서 달성할지 관심을 끈다. 이들은 리그에서 통산 35골을 합작, 프랭크 램퍼드-디에드 드로그바(첼시)가 보유한 EPL 역대 최다 골 합작 기록인 36골에 단 한 골 차로 다가섰다.

연합뉴스

제주Utd "파이널 A 반드시 쟁취"

24일 전북전 앞두고 필승 의지 재생 유니폼 '제주바당' 선공개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 남기일 감독과 주장 주민규가 파이널 A 무대를 향한 필승 의지를 드러냈다.

21일 제주시 호텔레오에서 오는 24일 전북 현대와의 맞대결을 앞둔 제주의 미디어데이가 열렸다. >>사진 이날 남 감독은 "지금까지도 선수들이 잘 이겨냈고, 이번 경기도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다"면서 "주민규 선수도 컨디션이 좋아서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경기다.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장 주민규도 "팬들이 만들어준



유니폼으로 전복을 이겨서 반드시 파이널 A에 진출하겠다"면서 "유니폼을 입으면서 선수들끼리 정말 멋지고 좋다는 이야기를 나왔다. 좋은 기운이 생기는 느낌이다. 이번 경기가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미디어데이에서는 팬들이 '그린포인트 제도'를 통해 직접 모은 페

트병으로 만든 재생 유니폼 '제주바당'이 선공개됐다. 제주 선수들은 '제주바당'을 입고 전북전에 나선다.

한편 이번 전북전(24일 오후 3시 제주월드컵경기장)은 제주가 파이널 A 진출을 가능할 중요한 승부처다.

현재 제주는 10승 14무 8패 승점 44점으로 리그 5위를 기록하고 있다. 6위 수원 삼성과 7위 포항 스틸러스(이상 승점 42점)과의 격차는 승점 2점으로, 이날 승리할 경우 정규리그 1위부터 6위까지 주어지는 파이널 A 행 진출을 자력으로 성공하게 된다.

제주 관계자는 "이날 수원과 포항의 경기 결과에 따라 비기거나 패해도 파이널 A 진출 가능성은 존재한다"면서 "다들 걱정에서도 제주(41골)가 수원(39골)과 포항(35골)에 앞서기 때문에 만약 승점이 같아져도 승산이 높다"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팬 전문 제조업체 보조사업 전문 시공업체

(주)팜그린텍

특허 제10-2078975호

Farm Green Tech 공기교반기(130W)

특허받은 모터캡 사용으로 모터 2중보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특허받은 바람판 토출구로 인해 사각지대 최소화

침체된 하우스 내부 공기를 순환시켜 광합성 촉진

균일한 생육 및 성장 촉진

하우스내 상/하부 온도편차 감소

여름철 고온피해 및 겨울철 냉해피해방지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천장형환풍기(330W)

특허 제10-2182942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환풍기(800W)

프레임 보강 서터 사용 -내구성 향상

고풍압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서터 별도판매 모터 별도판매

Farm Green Tech 송풍팬(6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송풍팬(13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전 품목 전기안전인증 전 품목 IP54 방진방수인증

(주)팜그린텍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226 T. 064)732.0440~1, F. 064)763.0440 www.팜그린텍.kr / www.fgtech.kr